

## 예술은 인품이다. 박서보 화백을 그리워하다.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에서 박서보(1931~2023년)를 중심으로 한 한국 단색화 등 추상미술을 하정웅컬렉션을 통해 보여주는 전시를 개최한다. 그 전시를 앞두고 글을 요청 받았다. "하정웅, 잘 좀 써줘."라고 죽은 화백이 말할 것만 같다. 2023년 서울과 광주, 그리고 일본 내 미술인들에게 박서보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의 기수이자 거성을 잃어버린 심정이었다.

제3대 주일한국문화원장 윤탁 (재임 1983~1988년)에게 안내받아 도쿄에서 1980년대에 처음 열린 한일 현대미술전에서 한국 측 출품 작가 박서보 등을 소개받았다. 때마침 이우환이 전화를 주었고, 한일 현대 작가의 출품 작품은 물론 작가들과 만남에도 호기심이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다. 당시 박서보 개인이 뿜어내는 아우라와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 에너지 넘치는 눈빛, 클래식 테너 가수가 노래하듯 기본 좋게 울리는 발성이 매력적인 만남이었다.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이전에 박서보의 개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과 에너지에 압도당한 첫인상이었다.

"전시회가 끝났다"라며 박서보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 그를 만나러 갔고 그곳에서 하종현, 윤명로, 정영렬, 최명영을 소개받았다. 자신의 작품과 함께 "여비와 체재비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출품작을 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놀랐지만, 흡수하듯이 작품을 컬렉션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그때까지 고향인 아키타현 다자와 호반에 기도 미술관을 세울 계획으로 재임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있었고,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일을 계기로 서울에서 자주 연락이 왔다. 새로운 작품을 제작 중일 때는 보러 오면 좋겠다는 초대를 받았다. 당시 이우환의 작품도 수집하고 있었고, 광주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의 발기인이 되어 한국을 오갔기 때문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포의 홍익미술대학 아틀리에를 방문했다. 방문할 때마다 1점씩 수집하게 되었다. (박서보 작품 컬렉션 일람 참고) 방문할 때마다 매년 10~20%씩 인상한 그림의 가격표를 제시했다. 함께 간 아내는 초대한 방문객에게 값을 올리는 행위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나는 그가 부르는 대로 계속 수집했다.

2012년 광주시립미술관 주최 하정웅컬렉션 《이우환》전 개막식에 박서보는 김창열, 윤명로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모두 모이는 리셉션 자리에서 박서보는 "하정웅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사 갔다."라며 자랑스러워했다. 동석한 아내는 박서보의 양심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내 어깨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기념 포스터를 제작했다면서 포스터 10장을 받았다. 내가 사인을 넣어달라고 부탁하자 “포스터에 사인을 넣어달라고 부탁한 건 당신뿐이야”라며 매우 기뻐하며 사인을 해 줬다. 그 포스터를 미술관에 기증했을 때, 포스터는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작품의 완성형인 포스터도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알려주었다. 박서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매우 기뻐했고, 나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2000년 제3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있었던 일이다. 박서보는 하리우 이치로(針生一郎)가 기획한 기념전 《예술과 인권》전과 광주시립미술관 기획 《재일의 인권》전을 관람했다. 이 전시는 하정웅컬렉션의 재일 작가 작품을 바탕으로 기획한 것으로 나는 전시기획에 참여했다. 그는 비엔날레 본전시 《예술과 인권》전도 좋았지만, 하정웅의 《재일의 인권》전이 비엔날레 본전시를 뛰어넘는 좋은 전시였다고 칭찬을 남기고 돌아갔다. 좀처럼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들어서 더 기뻐고, 그 이상으로 재일교포 작가들이 조명받은 것이 몹시 기뻐다.

2020년경 박서보는 전화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게 되었으니 참석해 달라”고 초대를 하였다. 나는 몇 년 전에 심장 수술을 했고, 게다가 코로나 사태도 겹쳐서 한국을 방문할 수 없다고 결례를 무릅쓰고 거절했다. 나중에 다시 권유를 받았지만,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한 것이 지금 와서는 후회되고, 유감스럽다. 박서보의 권유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그 일기일회를 놓친 것은 일생의 부덕이었다.

40년의 교제를 돌아보면 그는 상냥하고 관용적이었으며 언제 만나도 즐겁고 그리운 사람이다. 항상 새로운 것을 흡수하려는 의욕이 넘쳤고 서비스 정신 왕성하고, 리더십이 있어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언제나 살갑게 작업실로 안내해 주었고, 작품의 제작 과정과 콘셉트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묘법을 설명해 주었다. 무심하게 선을 긋고, 붓을 놀리며, 색깔에 대해 고정된 표현을 거부하는 감성을 현대적으로 느꼈다. 현대미술의 재미는 이러한 우연성을 각각의 감성으로 보는 데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재단법인 서보미술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비전을 뜨겁게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이 다음 세계를 암시하게 한다. “다음은 이렇다”라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작을 향한 에너지와 생기가 넘쳤다. 단순한 선과 흑의 농담에 의한 그림자, 본질적으로 그것이 그림인가 생각하게 하는 깊은 경지, 무기질, 기하학적 도형의 나열로 구성된 그림은 다른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고 나는 평가한다. 최선을 다하고, 적당히 하거나 불량하지 않다. 시니컬하게 흘려보내지 않는다. 긴장감

있는 무대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연출력과 구성력은 장인의 경지이다.

80대에 들어서도 창작 의욕이 꺾이지 않고, 독특한 방식으로 늙음을 상실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모색하는 기회로 보았다. 그의 이러한 자세와 빛나는 개성, 인간성 그 자체가 박서보 예술의 진면목이라 생각한다. 그 예술에 축복을 보내며, 명복을 빈다.

#### 박서보 작품 컬렉션

---

|                   |    |      |               |               |
|-------------------|----|------|---------------|---------------|
| 1. 묘법 No.66-78    | 유화 | 1978 | 130.8x161.2cm | 광주시립미술관 기증    |
| 2. 묘법 No.6-80     | 유화 | 1980 | 162.1x227.3cm | 광주시립미술관 기증    |
| 3. 무제             | 판화 | 1982 | 49.2x69.5cm   |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기증 |
| 4. 무제             | 판화 | 1982 | 97.2x63.5cm   |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기증 |
| 5. 무제             | 판화 | 1982 | 97.2x63.5cm   |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기증 |
| 6. 무제             | 판화 | 1982 | 48.5x63.5cm   |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기증 |
| 7. 무제             | 판화 | 1982 | 20.4x16.8cm   |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기증 |
| 8. 묘법 No.5-82     | 유화 | 1982 | 112.2x145.5cm | 광주시립미술관 기증    |
| 9. 묘법 No.226-85   | 유화 | 1985 | 80.2x116.8cm  | 광주시립미술관 기증    |
| 10. 묘법 No.393-86  | 유화 | 1986 | 192x98cm      | 광주시립미술관 기증    |
| 11. 묘법 No.87-1228 | 유화 | 1987 | 182x227.5cm   | 광주시립미술관 기증    |
| 12. 묘법 No.89-1020 | 유화 | 1989 | 70.5x103cm    | 광주시립미술관 기증    |
| 13. 묘법 No.90-1010 | 유화 | 1990 | 90.8x72.5cm   | 광주시립미술관 기증    |
| 14. 묘법 No.90-0324 | 유화 | 1990 | 53x45.5cm     | 광주시립미술관 기증    |
| 15. 묘법 No.90-1012 | 유화 | 1990 | 72.8x90.7cm   | 광주시립미술관 기증    |
| 16. 묘법 No.90-0725 | 유화 | 1990 | 90x117cm      | 광주시립미술관 기증    |